

직업능력개발

I. 직업능력개발 정책

□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일학습병행제 인식조사」 결과 발표(2014.10.6.)

- 응답자의 83.7%가 일학습병행제가 청년층 취업난과 중소기업의 숙련인력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
- 만 15~29세 청년층의 경우 75.1%가 ‘일학습병행제 참여 의향이 있다’고 응답

□ 고용노동부, 산업계 주도의 ‘직업훈련혁신 및 심사평가위원회’ 첫 회의 개최(2014.10.1.)

- 고용노동부는 ‘직업능력개발 혁신 3개년 실천계획’(2014.9.25.)의 후속 조치로 ‘직업훈련 혁신 및 심사평가위원회’(이하 심평委)를 발족
- 심평委에서는 직업훈련과정 심사·평가 기준, NCS 기반 新자격 등 직업능력개발 분야의 다양한 정책을 심의하고, 특히 일학습병행제의 업종별 훈련프로그램과 수료생 평가 등의 모든 기준, 산업계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할 계획임.

□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제(한국형 도제제도)의 제도화를 위한 근거 법률인 ‘산업현장 일·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2014.9.30.)

- 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

- 1) 새로운 교육훈련제도로서의 일학습병행제에의 참여 및 체계적인 교육훈련 실시 방법에 관한 사항 규정
- 2) 기존 노동법에 준해 학습근로자를 보호하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근로시간 등에 있어 일부 특례 규정
- 3) 학습근로자가 최종 평가에 합격하는 경우 고용을 보장하되 수습 기간 등을 두어 유연안정성을 도모하도록 규정

- 4) 학습근로자의 일학습병행 성과 확인 및 사회적 통용성 부여를 위해 직무 능력 평가 및 자격제도 규정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혁신 3개년 실천계획」 발표(2014.9.25.)

- 지난 4월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인력 개발 부분을 뒷받침하는 「직업능력개발 혁신 3개년 실천계획」을 발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을 위해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산업계가 직접 결정하도록 함.
- 2) 현장 업무를 중심으로 新직업자격제도 재설계
- 3) 모든 훈련 과정이 新직업자격과 연계되는 직업훈련 체제 구축
- 4) 근로자가 전 생애 단계에 걸쳐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체제 구축
- 5) 실업자와 근로자의 구분 없이 누구나 원하고 필요한 훈련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의 칸막이를 없애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연계해 취약계층의 고용성과를 높이도록 함.
- 6) 일·직무 중심으로 양성한 직업인이 합리적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능력중심 생태계를 구축·확산하도록 함.
- 7) 산업계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혁신 거버넌스를 구축해 직업훈련의 내용·수준·방식을 직접 심의·결정하도록 함.

□ 여성가족부·미래창조과학부, 이공계 여성의 재취업과 경력 개발 지원을 위해 ‘서울 과학기술여성새일센터’와 ‘과학기술여성인재아카데미’를 각각 개소(2014.10.15.)

- 여성가족부는 (재)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를 ‘경력개발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지정하고, 경력 단절 이공계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 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 알선 등의 원스탑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원하는 ‘과학기술여성인재아카데미’는 신진 여성 박사와 산·학·연 재직 중간 여성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할 계획

II. 직업능력개발 통계

◆ 기업 단위의 교육훈련 실시 현황(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3~5차 자료)

□ 인적자본기업패널 조사 대상 기업체 중 절반가량(50.4%)이 교육훈련 전담 조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2013년).

- 업종별로는 금융업 분야가 전담 조직을 갖추고 있는 기업 비중이 78.1%로 가장 높았으며, 기업 규모가 클수록 비중이 높아짐.
- 전담 조직이 없는 기업 중 교육훈련 전담자가 있는 기업은 53.1%로 나타남.

표 1. 기업 내 교육훈련 전담 조직 · 전담자 비중 추이

(단위: %)

		2009		2011		2013	
		조직	전담자	조직	전담자	조직	전담자
전체		58,7	37,4	53,8	48,1	50,4	53,1
업종	제조업	58,2	37,9	50,9	48,1	48,7	54,1
	금융업	91,9	33,3	86,5	80,0	78,1	42,9
	서비스업	48,0	36,5	52,1	44,4	47,3	51,0
기업 규모	299인 이하	48,4	30,1	40,6	37,3	36,1	43,4
	300~999인	57,3	42,5	56,1	62,7	53,5	66,2
	1,000인 이상	89,0	88,9	84,4	78,6	84,7	92,3

주: 1) 전담조직 또는 전담자(전담조직이 없는 경우)가 있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임.

2) 종업원 수 1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임.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3차(2009)~5차(2013) 자료

□ **인적자본기업패널 조사 대상 기업의 근로자 1인당 교육훈련비 총액은 평균 42만 1천 원임(2013년).**

-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74만 4천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2009년과 2011년의 경우 금융업 분야의 근로자 1인당 교육훈련비 총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3년의 경우 서비스업이 금융업에 비해 약 11만 원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규모별로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1인당 교육훈련비 총액이 증가함. 1,000인 이상 기업의 1인당 교육훈련비 총액은 86만 4천 원으로 전체 평균의 2배 가량임.

표 2. 1인당 교육훈련비 총액 추이

(단위: 만 원)

		2009	2011	2013
전체		48.7	38.1	42.1
업종	제조업	42.4	32.1	32.0
	금융업	94.2	89.1	62.9
	서비스업	53.8	44.5	74.4
기업 규모	299인 이하	35.7	25.6	19.7
	300~999인	45.5	36.0	53.1
	1,000인 이상	93.2	78.1	86.4

주: 1) 교육훈련비는 종업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투자비 총액임. 고용보험 환급액, 고용보험 지원을 받지 않는 교육훈련비, 교육훈련 시설 및 장비 구입(대체)비용 등을 모두 포함
 2) 종업원 수 1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임.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3차(2009)~5차(2013) 자료

□ **인적자본기업패널 조사 대상 기업의 교육훈련 방법별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집체 식 사내교육훈련의 실시 비중이 85.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2013년).**

- 다음으로 집체식 사외교육훈련(72.4%), 인터넷 학습(55.6%)인 것으로 나타남.
- 국내 연수(20.9%), 해외 연수(18.6%) 및 외부업체로부터의 기술 지도(15.0%)는 실시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3. 기업의 교육훈련 방법별 실시 비중 추이

(단위: %)

	2009	2011	2013
(1) 집체식 사내교육훈련	75,3	82,9	85,3
(2) 집체식 사외교육훈련	67,4	76,5	72,4
(3) 인터넷 학습(e-learning)	58,1	57,5	55,6
(4) 우편통신훈련(독서통신훈련)	42,7	40,2	29,4
(5) 국내 연수	28,8	22,5	20,9
(6) 해외 연수	27,1	23,5	18,6
(7) 외부 업체로부터 기술 지도 받기	15,4	15,1	15,0

주: 1) 해당 훈련을 실시한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이며, 공식 프로그램으로 실시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응답한 결과임.

2) 무응답 및 모르겠음은 제외

3) 종업원 수 1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임.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3차(2009)~5차(2013) 자료

□ 인적자본기업패널 조사 대상 기업체의 교육훈련 분야별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회계, 재정, 관리 및 행정, 사무 훈련(60.8%)이 가장 많이 실시되는 것으로 나타남(2013년).

○ 다음으로 자기계발 또는 직장 생활(58.2%), 환경 보호, 직업 건강 및 안전(46.3%), 외국어(46.0%) 순인 것으로 나타남.

○ 회계, 재정, 관리 및 행정, 사무 훈련과 외국어 교육훈련의 경우 업종 간 편차가 다른 분야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4. 기업의 교육훈련 분야별 실시 비중 추이(복수 응답 가능)

(단위: %)

		2009	2011	2013
(1) 외국어	전체	50,7	49,7	46,0
	제조업	49,1	49,1	46,3
	금융업	75,7	64,9	53,3
	서비스업	46,2	46,2	42,7
(2) 판매 및 마케팅	전체	53,9	48,7	44,8
	제조업	52,7	46,3	41,1
	금융업	78,4	83,8	80,0
	서비스업	48,4	44,1	47,2

<표 계속>

		2009	2011	2013
(3) 회계, 재정, 관리 및 행정, 사무	전체	66.9	66.5	60.8
	제조업	68.4	68.0	61.5
	금융업	70.3	73.0	63.3
	서비스업	60.2	58.1	57.3
(4) 자기개발 또는 직장 생활	전체	71.8	66.5	58.2
	제조업	71.0	65.3	55.8
	금융업	86.5	83.8	83.3
	서비스업	68.8	64.5	59.6
(5) 컴퓨터 공학, 컴퓨터 활용	전체	37.5	31.7	26.8
	제조업	31.9	26.8	24.1
	금융업	48.7	37.8	26.7
	서비스업	52.7	48.4	37.1
(6) 엔지니어링, 제조, 건설	전체	38.4	43.1	40.0
	제조업	48.0	52.6	47.4
	금융업	2.7	0.0	0.0
	서비스업	18.3	22.6	24.7
(7) 환경 보호, 직업 건강 및 안전	전체	42.2	44.1	46.3
	제조업	54.5	55.3	56.6
	금융업	10.8	10.8	3.3
	서비스업	10.8	12.9	20.2

주: 1) 해당 분야 교육훈련을 실시한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이며, 공식 프로그램으로 실시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응답한 결과임.

2) 종업원 수 1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임.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3차(2009)~5차(2013) 자료 KRIUET

인적자본기업패널(Human Capital Corporate Panel, HCCP) 소개

- 목적: 우리나라 기업의 인적 자원 관리·개발 실태와 근로자의 교육훈련 수준에 대한 패널데이터 구축
- 조사 시기: 2005년부터 격년으로 추적 조사 실시, 현재 5차(2013)년도 조사 완료
- 조사 대상: 기업 450개, 근로자 14,000여 명

(작성: 박보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